

4

정복세력의 지도자

미마키 이리비코(崇神), 부여의 장수들,

혹은 백제의 왕족—에가미-레드야드-흥원탁

가설들의 전개 과정

(1) 미마키(美麻紀伊理毘古, 御間城入彦, 崇神)

에가미(江上波夫, 1964)는, 전기 고분의 고고학적 자료들이 주술적, 의식적(儀式的), 농업적 특징을 보여 주는데 반해서, 후기 고분(이제 전통적인 중기 고분을 포함하여)의 그것은 한국 분묘에서 나오는 기물(器物)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 준다고 말하고 있다. 양쪽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강력한 기마(騎馬) 지향적 성향, 귀금속 장식을 서로가 좋아한다는 사실, 그리고 무기·의복·갑주 등의 양식이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 유사성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에가미는, “전기”고분 문화로부터 “후기”고분 문화로의 변화가 비교적 갑작스러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기”와 “후기” 자료의 단절을 “4세기 후반의 중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후기 단계의 문화는 왕후(王侯) 같은 위엄이 있고 귀족적이며, 그것이 일본에 널리 유포된 것은 군사력에 의한 정복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에가미는, 그의 논지를 분명한 역사적 사료

에 근거를 둔것으로 만들기 위해, 기마 침공군의 지도자를 미마나(任那)의 미마키라고 밝히고 있다. 위지(魏志)에는 한국 남부에, 마한(馬韓)의 월씨국(月氏國)을 통치하고, 총 24개 한(韓)나라들 가운데 12개국을 그 지배 아래 둔, 진왕(辰王)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예가미는, 이 3세기 진왕들 후손의 한 사람인 미마키가, 일본에 대한 기마민족 침공을 지휘했으며, 또 그 진왕들은 부여 혹은 고구려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남한의 미마나에서 큐우슈우로 건너가 그곳을 점령한 것은 미마키(崇神)였고, 그후 동쪽으로 진출해서 킨키(近畿) 지방을 정복하고 야마토 왜를 수립한 것은, 그의 후손 호무다(品陀和氣, 譽田別, 應神)였다는 것이다.

예가미의 이론이 갖는 하나의 결함은, 고고학적으로 보아 호무다만이 기마정복자에 속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마키 역시 기마정복자에 속한다는 그의 주장이다. 예가미는 미마키를 4세기 초의 인물로 보기 때문에, 기마 민족의 일본 침공을 고고학적 단절이 나타나는 때로부터 적어도 반세기 이상 소급해야 한다. 만일 예가미의 가설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후기 고분시대 유물들이 4세기 초에는, 적어도 침공이 시작된 곳이라고 그가 주장하는 큐우슈우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

예가미(1964)는, 단절된 연결고리를 구성하는 이 증거가 장차 틀림없이 발견될 것이라고 말한다. 예가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뒤, 커어클랜드(1981)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가미 설에서 남는 것은, 후기 고분 시대에 일본 사회의 성격에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의 최초 가정 뿐이다.” [그런데 커어클랜드 자신은 이것도 믿으려하지 않는다.]

(2) 부여의 장수들

그러나 레드야드(1975)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자료에 입각해서, 백제가 서기 369년에 한반도의 남부를 점령하고 난 다음, 어느 때인가에 야마토 지방을 정복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서 그는 고고학적 물증에 입각한 침공 주장과,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통합 시키므로써, 예가미 이론에서 나타난 시대 착오적 요소를 제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레드야드(1975)는 먼저, 일본서기(NI: 248-250)가 서기 369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일본에 의한 대규모 한국 침공이라는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당시의 일본 자체가 그와 같은 해외 원정을 감행할 수 있을만큼 중앙 집권화되어 있었다고 믿지 않는다. 일본서기에 서술되어 있는 군사 활동은, 일본인들이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제인들이 수행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말하자면, 백제는 서기 369년에 한국 남부로 밀고 내려갔으며, 그로부터 얼마후[미마나 지방을 거쳐서]큐우슈우(九州)로 계속 진출한 다음, 그곳으로 부터 드디어 야마토 지방을 정복하고, 4세기가 끝나기 전에 호무다(響田別)의 영도 아래 일본 최초의 중앙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외래의 정복자가 서서히 토착의 주민에 흡수되어 가면서, 백제의 전설들이 토착적인 시각에 일치하도록 다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기 369년에 있었던 백제의 한반도 남부지역 정복이, 일본서기에는 일본에 의한 그 지역 침공으로 기록되었고, 백제 사람들이 큐우슈우로 부터 동쪽으로 진격해 올라간 것은, 진무(神武)에 의한 중부 일본 정복의 이야기로 바뀐 것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자료의 이와 같은 해석은, 4세기 후반 일본에서 일어난 고분 유물의 고고학적 단절 현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백제가 4세기에 마한(馬韓)을 정복하고 한국의 남쪽 해안까지 영토를 확장 했다는 말이 없다. 이점에 대해서 레드야드(1975)는 그의 높은 상상력을 엿보게 하는 삼국사기 해석방법을 소개한다: “그러나 온조왕(溫祚王) 치세 [기원전 11년—서기 28년]에 . . .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일련의 예고성 기록들을 발견하다. 서기 6년에 마한이 백제의 침략적인 태도에 항의 했다고 말해준다. 7년에는 백제 내부에서 어떤 이웃 나라를 합병하게 될것 이라는 조짐이 나타난다. 8년에는 마한

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다. 9년에는 마한이 멸망한다. . . . 온조왕 연대기의 이러한 글들은 6주갑, 즉, 360년을 뒤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마한 정복은 366, 367, 368, 369년에 성취된 것으로 되어, 일본서기에 적혀있는 백제군의 남진 년도들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¹ 다시 말하자면, 백제가 마한을 정복한 시기를 아주 옛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국사기가 육십 갑자를 여섯 차례 뒤로 물려 기록한 것이라고, 레드야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¹

그러나 아마도 레드야드(1975)는 단순히 예가미 이론의 기마민족냄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백제가 서기 352년과 372년의 20년 사이의 연젠가에 부여족에 의해 건국이 되었고, 이 “부여족의 백제국”이 서기 369년, 남쪽에 있는 마한 전역을 정복하고는, 바다에 이르러, 배를 타고, 호무다(響田別, 부여 장수들을 人格化한 것)의 지휘 아래, 일본땅에 야마토 왜(大和倭)를 창건했다고 주장한다. 레드야드는 자신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KEJ: 3. 230): “필자는 예가미의 근본 착상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으나, 진왕(辰王)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그 대신 기마 민족의 일본 침공은, 부여가 백제를 세운 다음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시기를 필자는 4세기 중엽으로 보는 것이다.”²

레드야드는 백제 왕국의 창건과 호무다의 일본 진출 두가지 모두를 4세기로 상정하고, 또 이 두 사건 모두를 부여 난민의 남쪽 이동이라는 동일한 사건의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기마 무사들이 만주에서 남한으로 이동해왔다는 의견을 지지해줄만한 역사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다. 커어클랜드(1981)가 주장하고 있듯이, 4세기는 북부 중국의 불안정한 시기였으나, 그 불안정 상태가 한반

¹우리는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34)에 이것과 아주 똑같은 해석의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²레드야드(KEJ: 3. 230)는 계속한다: “자기 자신은 또 미즈노가 제시한 의견을 발전시켜, 기마민들에 의해 창건된 왕조는 6세기 초쯤에 종말을 고하고, 토착의 지배 계급집단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믿는다. 이렇듯, 기마인들은 한때 비록 일본을 지배하기는 했지만, 후일의 황족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을 것이다.”

도 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이다. 고구려라는 존재가 방어벽을 제공했었기 때문에, 북방경계 전체가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침공자라도 통과해야만 하는 통로에 위치해 있는 고구려가, 레드야드가 주장하는 규모의 침략으로 부터 살아 남는다는 것은 불가능 할것 같다고 커클랜드는 말한다. 부여는 서기 346년에 선비(鮮卑)족에 의해 정복 당했다. 진짜 대초원의 세력에 의해 막 처참한 패배를 당한 부여가, 어떻게 별안간 떠돌이 기마 정복자로 변신할 수 있겠는가?

커클랜드(1981)는 다시 지적한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백제가 4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백제는 아무리 줄잡아도 최소한 백여년 전 부터 마한 연맹 구성 국가들중의 하나였었다. 그러므로 부여가 백제를 세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 . 우리는 서기 366-369년 사이에 마한을 정복한 것은 부여가 아니라, 사실상 먼저부터 정착해 있던 토착[백제]세력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와 일본 사이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근친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필자는, 레드야드와 달리, 호무다(譽田別, 應神)와 그를 따랐던 일단의 지지자들이, 백제인 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3) 백제의 왕족

야마토 왜(大和倭) 형성의 주역들을 찾는데 있어서, 그리고 고분시대(古墳時代) 한국과 일본 사이의 특수 관계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예가미(1964)는 거의 전적으로 위지(魏志)에만 의존하고,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의 기록, 특히 오오진(應神)이후의 기록들은 거의 무시하고 있다. 만일 예가미가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오오진 이후 기록에 좀더 합리적인 비중을 주었다라면, 것처럼 시대 착오적으로 (미마나의 미마키로 대표되는) 삼한(三韓)시대의 진왕(辰王)들과 그 추종자들을 거론하는 대신에, 백제 사람들을 그 주역으로 확인 할수 있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레드야드(1975) 역시,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오오진

이후 기록들에 대해 합리적인 비증을 주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거의 전적으로 일본서기의 진구우(神功)에 대한 기록에 의존했다. 결과적으로 부여의 역할이 터무니 없이 과장되고, 이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의 진전은 대부분 무시되었다. 레드야드는, 한국으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예가미의 구도에 사로잡혀서, 예가미의 신비로운 “기마 민족”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빠져들어 간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그는 부여라고 하는, 북아시아의 한 기마 민족이, 4세기 중엽 바로 직후의 어느 때에, 한국 땅의 토착 주민들을 정복하여, 먼저 백제라는 한국의 나라를 세웠다고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사는 백제의 통치자들이 실제로 부여로 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백제 지방에 도착한 것은 기원전 18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통치자들이 부여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4세기 중엽에 “부여”가 마한을 정복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레드야드와는 달리, 우리는 다음 절에서,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년)의 축복을 받고 큐우슈우를 거쳐 일본의 중심부를 정복한 것은, 호무다(響田別, 應神)로 대표되는 백제의 왕족과 그 추종자들이었다고 주장할 따름이다.

(4) 그 신비한 기마 민족

샌섬(1973: 27)은 말한다: “일부 필자들은, 큐우슈우에서 중부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난 씨족들이 말레이 족이었다고 가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정의 지도자들은, . . . 몽골족의 혈통을 가졌으며, 쓰시마(對馬)해협을 거쳐 한국으로부터 건너 왔다는 가설의 타당성을 주장할 이유도 많은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풍미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가미(1964)는, 야마토 왜(大和倭)의 창건자들이 4세기 말에 외부로부터 이 나라에 들어왔으며, 일본을 휩쓸고 정복한 이들은 동북

아시아에서 유래한 기마 민족이었다는 그의 이론을, 수많은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도록 만들수 있었다. 한 학술 논문에서 예가미(1964)는, “하늘의 신들이라 불린 이방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사회 구조와 신화와 전통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부여인 및 고구려인과 관련이 있는 동북 아시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예가미는, 일본 대중을 상대로 말을 할 때에는 (江上, 1986, 참고) 중앙 아시아의 역사적인 유목민 연맹들에 대해서 —예컨데 스키타이 족(기원전 8세기 이후 러시아 남부의 대초원에서 수백년 동안 살아 온 유목 기마민족), 훈족(匈奴,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1세기까지 몽골 고원에서 활동한 유목 민족), 퉁구스족, 선비(鮮卑) 타타르 족, 우환(烏桓) 몽골족등— 장황하게 길다란 설명을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정복자들이 부여인이나 고구려인처럼 농업이 주업이고 유목은 부업인, 중국화(中國化)된 “기마 민족”이었다는 생각에 도달하고 만다. 아무튼 황족의 조상이라는 아마테라스(天照)는, 자신의 눈을 손수 돌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가미(1967)의 “기마 민족 국가설”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될수 있다: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대륙의 기마 민족이
북에서 남으로 한반도를 따라 내려왔다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들어가서, . . .
일본의 지배자가 되었다. . .
황족과 한국 남부의 기마인들은
4세기 전반에 큐우슈우(九州)로 건너갔다. . .
정복을 완료하고 야마토왕조를 건설하는 데는
약 1세기가 걸렸다.
그 후 663년[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패배한 해]에,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황족은,
자기들이 아득한 고대로부터 일본을 통치해 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에가미는 한국의 직접적인 역할을 되도록 감추고, 다만 유라시아 형의 기마 유목민을 암시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기마 민족설”을 제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것 같다. 에가미는 기마 정복자들이 부여인 및 고구려인들과 관련이 있었다는 생각까지는 받아들이지만, “백제”인이 야마토 왜(大和倭)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여려 하지 않는다(江上 1989: 229-300, 참조).

일본의 지성(知性)의 해방도, 에가미로 하여금 백제인이 바로 일본에 대한 정복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대신 그는 북아시아에서 출현한 신비스러운 기마 민족이 한국의 남부와 일본 “양쪽”을 모두 함께 정복한 것이라고 말한다. 에가미(1964)는 “일본을 침공하지 직전, 그들[기마의 침공자들]은, 남한의 미마나(任那) 지역에 기지를 두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자기의 이야기가 백제나, 심지어는 미마나에도 너무 근접해 가면,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을 한다. 일본의 대중들에게 제시한 그의 주장은 분명히 사람들을 오도(誤導)하기 십상이며, 이 경우에 그의 모호함은 의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에가미의 목표가, 정말로 그의 고고학적 발견을, 가능한 한 애매모호하게 대중 앞에 내 놓으려는 것이었다면, 그는 성공했다고 볼수 있다. 에가미의 이론에 대한 밀러(1980: 170-171)의 다음과 같은 논평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기마인들이 도대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었고
오늘날의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종류의 외국 엘리트,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
즉 무시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함축은 강하다.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실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그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요, 따라서
 일본의 선사(先史)에 포함시켜 들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대륙이나, 더 나쁘기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문자도 해독하지 못하는
 잡종의 인간들 보다는, 그같은 역할을 해볼만한
 사람들 이었던것 처럼 설명되고 있다.
 끝없이 쏟아지는 사이버 학자적 억측들에
 영향을 받은 일반대중의 상상은,
 이왕 자신의 조국이, 선사시대에 침공 당하고
 정복 당한 적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면,
 하물며 그같은 억측이 한창 성행할 때
 자신들의 나라가 또 다시 외국 엘리트에 의해
 침공 당하고 정복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 정복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엘리트이며
 기마의 귀족들 이라고 상정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별로 나쁠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 . 선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
 혹은 또 언어학자들에게
 심각한 관심 거리가 될만 한 것이 못되었다.
 그러나 사회 병리학을 공부하는 학도들은
 이런 억측들 속에서 풍부한 연구 자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에가미는 한국이 4세기중 혹은 그 이전에, 동북아시아의 유목민
 으로 부터 침공을 당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
 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서기 313년에 한(漢)의 식민지 낙
 랑(樂浪)이 고구려에 의해 멸망된 일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다행히도 에가미는 야요이(彌生)시대 큐우슈우의
 수장 미마키(御間城入彦)의 근원 뿐 아니라, 고분시대(古墳時代) 야

마토 황족의 기원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단서들을 남겨 놓았다.³

이시다(石田英一郎, 1974: 85)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세기와 5세기에 관한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오오진(應神)과 닌토쿠(仁德)의 재위기간 중에
대단히 많은 이주민이 건너왔다. . .
만일 야마토 조정이 한국과 아무 관계도 없이 수립되었다면,
이같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는가?”

아이켄스와 히구치(1982: 336)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질문한다: “중기 고분 시대에 일본에 들어온 대륙의 영향의 파도는, 중앙 아시아 어디선가에서 온, 기마 무사들의 침공의 결과. . .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들은 13세기 중국에서의 징기스칸 군대처럼, 일본을 잠시 지배하다가, 결국은 그들 자신이 그때까지 유지해 왔던 독자적인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속에 흡수되어

³에가미(1964)나 레드야드(1975)나 그들의 기마민족 일본정복설에서, 한국인에게는 어떤 종류의 명예도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중기 고분시대(古墳時代)의 그 거대한 규모의 분묘들은, 그것을 건조하는데 필요했었을 방대한 노동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레드야드(1975)는 먼저, 정복자들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지 않고서는 일본 농촌에서 그런 규모의 노동력을 끌어 올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인에 대한 경멸감의 표시로, 그 분묘들이 “만주와 한국의 정복으로부터, 새[야마토]국가의 건설 사업을 시키기 위해 부여인들이 말뒤에 묶어 바다를 건너 데리고 온 죄수들과 포로들”에 의해 축조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레드야드에 의하면, 그 영광스러운 부여인들은, 한국 사람들과는 아무관계가 없는 존재인데, 먼저 한국 남부를 정복하고, 스스로를 백제라 부르면서 한국인 죄수들과 포로들을 말 뒤에 이끌고와, 그 엄청나게 큰 중기 고분시대의 분묘를 축조했으며, 그 “정복당했다는” 일본 토착민의 명예로운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레드야드는, 한국의 정복자로서 한국인을 “강제하여” 배를 만들고 움직여서 일본으로 “해외 이주”시키도록 만들었다는 부여인에게, 몽골 정복자와 상응하는 신분을 수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버린 정복자였을 것이다. 이 논지는. . . 납득할 만한 증거도 없이, 알수없는 이유로, 미지의 나라로부터 모습을 나타내서, 일본을 정복한 다음(가는 길에 한국도 정복하고), 그 장면속에 너무나 철저하게 옹해되어 들어가서, 그들의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이나 전통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이론이며, 그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문만을 제기시키고 있다.” 분명히 아이켄스와 히구치는, 백제를 언급하는 당혹감을 피하기 위해 기마 정복자의 고향을 “중앙 (또는 북) 아시아”로 꾸민 것이 바로 예가미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에 건너온 백제인들은 그들 본래의 신원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알수없는 이유로, 미지의 나라로부터 나타난 미지의 종족이 아니었다. 일본을 정복한 후에 백제인들은 실제로 그 장면 속에 옹해되어 들어갔지만, 기록이나 그들의 전통에 대한 흔적도 남기지 않을만큼, 그렇게 철저히 녹아 들어가지는 않았다. 예가미의 이야기는, 오직 그가 “백제”라고 할 자리에 “중앙 (혹은 북)아시아”를 고집하는 바람에 불합리한 이론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밀러(1980: 171)는 말한다: “그러한 가설[이를테면, 초기 일본의 문화, 국가,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형성 사건은,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기마민족에 의한, 적어도 한차례의 대침공 이었다는 가설]의 주된 이점은, 그런 가설이 초기 일본에 대한 외부 영향의 중요성을 인정 한다는 것이고, 일본의 발전을 아시아의 여타지역, 특히 한국에서의 상태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확실히 옳은 방향을 향한 시도인 것이다.”

밀러(1980: 172)와 같은 언어 학자에게 있어서는, 기마민족 가설의 가장 큰 한계는, 일본어의 기원에 관한 한, 그 가설이 언어를 포함한 일본 문명의 모든 국면이 형성된 시기를, “원사(原史) 시대에 설정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있다: “기마 민족의 가설이 다루고 있는 침공은, 우리시대의 4세기 말에 일어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당시에 그와 같은 침공이 —심지어 이 가설의 지지자들이

상상하는 형태의 대규모, 파괴적인 침공도—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일어났었다면, 그것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살아 오던 나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다. 기마민족은, 만약 실제로 존재 했었다면, 그 진짜 형성 단계에서 이미 수천년은 진보해온, 하나의 문화적, 언어적 장면 속에 아주 늦게 들어온 침투자였던 것이다. 4세기 말경에 일본인의 생활에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거의 틀림없는 것 같다. 그 무엇인가는 아마도 대륙으로 부터의 침공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면, 그것은 뒤에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1945년의 패배에 뒤따른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이 일본의 언어와 문화에 남긴 것 이상으로, 인상적인 흔적을 남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일본어의 형성 시기를 고분 시대에 두지 않기 때문에, 밀러의 주장에 대해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나는 다만 4세기 말에 일본을 정복한 백제인들이, 미국 점령군과 맥아더 원수가 남긴 것보다, 훨씬 많은 인상적인 흔적을 뒤에 남겼다고 주장할 따름이다. 그것은 단지, 야마토 왜 이전의 일본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2차대전 이전의 일본만큼 발전해 있었지 않았기 때문이다.